아동청소년 성구매 수요 차단 방안

성매매

- 성매매의 일반적 구성:
  성구매남성-포주-성판매여성

- 아동청소년성매매의 구성:
  성구매남성-성판매여성
  성인남성-아동청소년여성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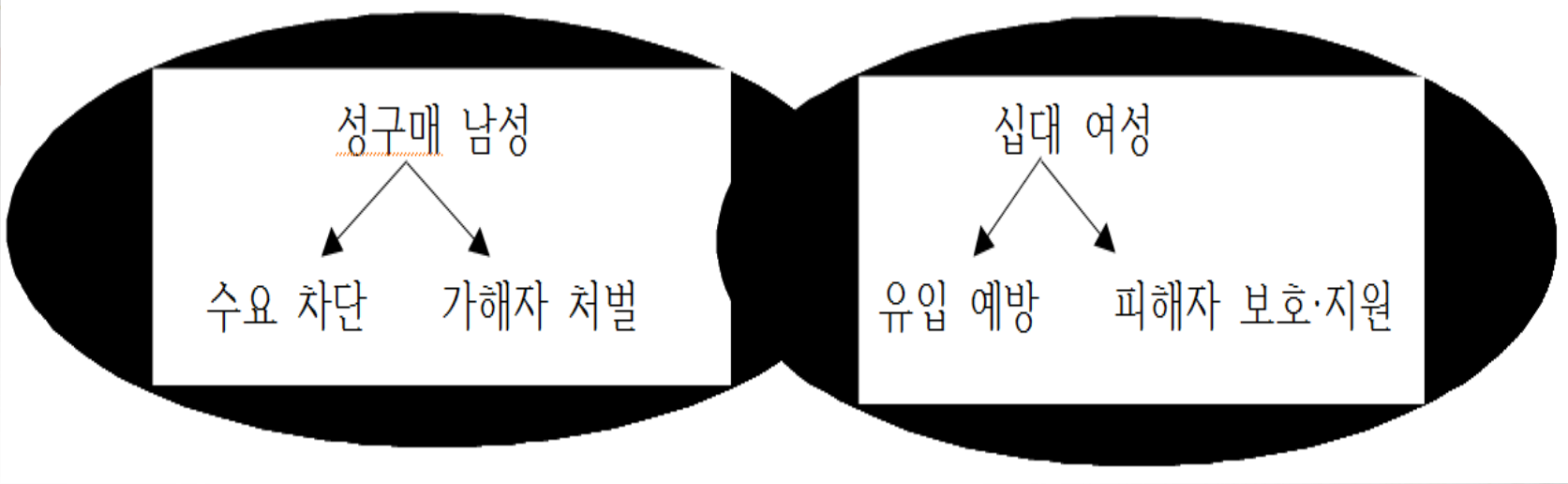
- 개인형 성매매
- 연령 권력의 추가
-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되지만 성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보호담론에 의해 피해자로 규정
-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성구매 행위 비난
- → 지난한 자발/비자발, 성노동/성착취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자발/비자발, 성노동/성착취 논쟁의 함정

- 성판매 행위에 초점
- 성매매의 근본 원인인 '수요' 비가시화에 일조
- '윤락', '매춘' → '성매매' 용어 변경의 의미가 무색
- → 비가시화되어 온 '수요' 즉 성구매 남성에 대한 개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성매매의 개입 지점

- 예방과 사후개입



- 성구매 남성: 처벌 위주(사후 개입)

성구매 사후 개입 실태

- 함정수사로 아동청소년 적발
  - 대상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 증거 불충분으로 성구매남성 조사 미비
- 처벌 경미(집행유예,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수강명령 등)
- 존스쿨의 문제점

수요 차단의 필요성

- 처벌은 이미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 발생을 의미(성매매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 성구매 남성, 경찰, 검찰, 판사로 이어지는 남성 연대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
- 법률적 개입의 한계
- 수요 차단 노력 부족: 성매매특별법, 정책, 성판매 여성 자활 지원 등에 집중
- 수요 차단을 통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 발생 예방(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스웨덴 사례(오재림, 유숙란, 안재희, 2006)

- 성매매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로 규정
- 성구매자는 일탈자가 아닌 '일반 남성'으로 명시
-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라는 '대항 프레임' 제시
- 성거래의 권력 관계 명시
- 자국 이미지 구축: 성평등 국가
- 성구매=불평등한 사회
- 성매매는 인권 문제, 집단 선의 추구
- 여성 세력의 연대(국회의원, 장관의 약 50%가 여성)

수요 차단 시도

- 여성가족부
  - ‘White Tie’ 캠페인: 2005년 6월부터 12월 성매매를 허용하는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 남자를 의미
  - ‘음주 회식문화 개선’ 캠페인(2007)
- → 성차별적, 남성중심적 ‘문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가부장적 문화

- 성매매금지법에도 성구매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남성문화의 일부분으로 용인되는 이중성(김애령, 2008: 260)
- 남성성(“진짜 사나이”)에 대한 사회적 개념, 또래의 강권, 남성 연대 구축 의식(Yen, 2008)
- 성구매 남성은 비가시화된, 익명의, 비난받지 않는 집단으로 남아있음
- 성판매 여성과 달리 성구매 남성은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

성차별적 사고

- 경제적 취약성과 같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
- 성녀/창녀 이분법: 내 딸, 애인, 아내, 어머니만 아니면 괜찮다는 사고
-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유숙란, 오재림, 안재희, 2007)
- 아동청소년성구매: 순결, 깨끗함(성병), 어림에 대한 성적 욕망(Yen, 2008)
-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와 통제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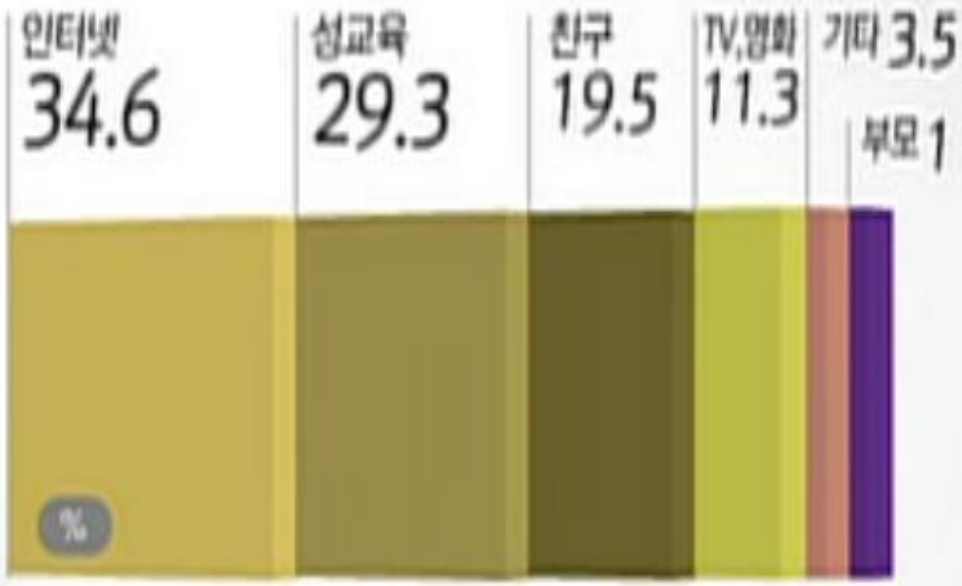
인식 변화 필요

-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성구매 행동 간의 관계(정진경 · 양계민, 2003)
  - 성매매에 대한 편견적 태도('성매매의 정당성', '성매매의 필요성',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성')와 성구매 행동 비례
  - 성구매 경험자는 비경험자 집단보다 성매매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지님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실태(아하, 2007)

-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무시한 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대규모 치러내기 식으로 진행
- 선언적인 내용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통로



출처: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2008)

n=1077
신뢰도 95%

십대 청소년성매매 사범 증가

-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40%가량 증가
-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지난 2008년 388명에서 2012년 541명으로 39.4% 증가
- 19~20세 성매매 사범 역시 같은 기간 483명에서 553명으로 14.5% 증가

성평등적 성교육에 성구매 문제 포함

- 성평등적 성의식 교육
- 포르노 교육: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여성의 성적 도구화, 성구매 행위
- 성구매는 여성 인권, 존엄성, 권리 침해임을 교육
- 성구매가 수용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 함양
- 성구매가 성산업을 영속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림
- 성구매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교육

청소년 보호체계에서 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의 한계

진란영((사)탁틴내일)

10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체계를 떠 올려보면, ‘청소년지원시설’ 외에 마땅히 다른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는 10대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한 사회적 자원이 ‘청소년 지원시설’이 고, 그 외에 ‘보호’ 차원에서 10대 성매매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시설’은 생활이설이기 때문에 입소를 하거나 이용자 등록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10대 여성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현재 성매매 10대여성을 위한 자원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접근단계 : 1388, 성매매피해상담소, 드롭인센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보호단계 :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서울지역중심) : 대안학교(서울시 2곳, 창원 1곳), 인턴쉽센터(1곳), 여성성공센터 W-ing , 커피동물원, 그룹홈

단계별로 기능을 살펴보면, 접근단계에서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곳이 성매매 10대 여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전문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경우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교육의 기능이 강하다.

보호단계에서 청소년지원시설은 ‘생활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감이 크고, 그 거부감의 대체적인 이유는 ‘규칙’으로 인한 답답함, 사생활 확보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활지원의 단계에서는, 일단 자활을 시도 할 수 있을 만큼 탈성매매 동기가 생기려면, 자활지원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자활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심리적으로 자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자활지원의 영역에 10대 여성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보호단계의 영역에 들어 있는 청소년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별의 기능과 역할이 가장 취약한 지점은 접근단계이다. 그런데 접근단계의 기능과 역할이 취약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재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과 맞물려 있다.

현재 10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경로는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보다, 인터넷, 어플, 보도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여성 스스로 '성매매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다. 업소에 고용되어 있던 시절에는 '빚'이나 '업주의 폭언, 강요', '보증'의 형태로 가시적인 피해가 있었으나, 인터넷이나 보도방처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비가시화 된 피해'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는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10대 여성 스스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0대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사회적 자원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자원들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자원은 '사또'나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아웃리치' 정도이다.

청소년 고유의 특성에 맞춰 자원의 한계를 생각해보면, 지적기능이 취약한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자원의 지역적인 분포를 생각하면 경기(인천) 지역에 자원의 열악함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 성매매 10대 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자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곳에서 양성되는 전문인력 역시 많지 않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10대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내담자 관점에서는 '탈성매매'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성매매 근절'이다. 그런데 현재의 피해자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으로는 '성매매 근절'을 과연 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구매자 차단'에 대한 접근도 구체적이고 실질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매자 차단 업이,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1. 접근단계에서의 자원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접근단계에서의 자원강화를 위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 혹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여, 접근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

2. 구매자를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며,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어플이나 사이버상의 알선,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제지도 필요하다. 구매자 차단의 주요 방안으로 유스키퍼제도 활성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청소년'이어야 하는데, 사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유인행위'를 '소극적 유인하는' 업무까지 확대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3. 지역적으로 자원이 열악한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자원설치가 필요하다.

4. 청소년 개인의 특성(지적, 다문화등)에 맞춘 시설이 필요하다.

5. 성매매 10대 여성이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되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 상담조사 단계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사법적 처리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워크숍(2)

-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이후 지원 방향에 대한 대안 찾기 -

2013. 10. 28

신그리나

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소개

1) 사업근거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시행령 제3조, 제4조[1)]

2) 사업대상

- 경・검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이 통보’된 청소년
-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
- 사이버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

3)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 또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교육·사례관리 등 다각적 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탈성매매를 결단하고, 다양한 인적/사회적 관계망을 지닌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업목표

- 수사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연계를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송년부송치)
① 검사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 검사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교육과정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입(사전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다.

- 십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 위기청소년들의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적·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스스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한다.
- '청소년성장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지모임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교육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사기를 증진시킨다.

5) 주요사업내용

- '청소년성장캠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 사전·사후지원 (초기 상담, 의료, 법률, 심리정서 지원, 주거, 일자리 지원, 진로/진학 지원, 사회적 관계망 구축, 가족지원 등)
- 지지모임

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경·검찰에서 통보된 '대상청소년'으로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않음

- 성매매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연 5회의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경·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이 발견되어 센터로 연계되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어 교육프로그램을 앞두고 아웃리치 등을 통해 6~8명의 교육참여자들을 직접 발굴해야 함. 사례발굴, 초기상담 및 의료·법률·학업 등의 개별지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회계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함. 과다한 업무로 교육프로그램을 단순히 운영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가출, 성매매 등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나 교육수요를 채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 중 이탈 및 포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됨. 이는 결국 탈성매매 및 재유입 예방으로 이어지기 힘들게 만듦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2) 사후지원기간 1년이라는 제한이 주는 문제점

-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내담자 사후지원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현재까지는 교육센터 내에서 의료지원 외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많지 않음. 그래서 내담자의 욕구가 파악되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서울지역만 예로 보더라도 성매매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음(쉼터 4개, 대안학교 2개, 자활지원센터 2~3개 정도). 교육센터 내에 법률, 자활 등의 통합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도 하지만 사후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을 구상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다른 기관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사례를 책임지고 관리하지 못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3) 법률지원 시스템의 부재

- 계속해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여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초점이 성매매청소년들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과 관련한 법률지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 하지만 실제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사전사후비 부족, 지원기간의 제한, 인력 및 자원부족 등의 문제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사이버또래상담실에서 법률지원을 대신하고 있음. 청소년들을 지원하다보면 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더욱이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사람과 만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내담자들의 욕구를 저하시켜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함.

4) 교육프로그램의 지나친 비중

-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이 아청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긴 하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매매청소년들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실제로 교육을 통해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환경과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하지만 사전지원은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수준에서, 사후지원은 의료지원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최대 한계라고 생각됨. 실제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회기당 목표 인원을 채워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예산 편성도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62.29%, 교육 및 지지모임이 32.15%, 사전사후지원이 5.46%로 교육 및 지지모임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매매청소년종합지원기관이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성매매청소년 상담 및 지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때, 성매매청소년에게 통합지원을 제공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3. 아청법 개정('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이후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 경·검찰에서 발견되어 통보되는 인원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상청소년'의 개념 삭제 유무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사업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양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성매매청소년종합지원기관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발굴, 사전사후지원 업무를 확대하여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됨.

2)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업소형(보도)과 개인형(조건), 알선과 피해의 경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따라서 '대상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난 이후에도 각기 다른 경험들을 세심하게 살펴 개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집단/그룹형 교육이 아니라 대상자와 필요에 맞는 수시 교육이 기획되어야 함.

3) 또래 가해자(알선자 및 성구매자) 대상 교육과 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받은 성구매자 교육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기획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한 이슈들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

4) 성매매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그룹홈 등이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쉼터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기술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활센터도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성매매피해 청소년지원시설

김란희(푸른꿈터)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지원시설의 종류(동법 제5조 1항)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지원시설의 업무(동법 제7조)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원시설 입소 등(동법 제8조)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이용자(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① 개념 :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지 않고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② 이용기간 : 입소기간에 준함

③ 이용자에 대한 관리

- 시설 이용과 동시에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게 관한 교육 실시(1일)
- 이용기간 동안 월 4회 이상(1회 이상 시설 방문) 취업, 치료, 생활환경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이용 가능 인원 : 입소 정원의 50% 이내(상한)

2) 청소년 지원시설 현황

(2013.1.1 기준/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	2	2	0	1	1	0	0	0	0	0	0	1	0	2	0	14

※출처 :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성매매 노출된 청소녀가 이용 가능한 쉼터

근거법	종류	대상	기간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청소녀	19세까지 입소가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 위기청소년지원,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일시쉼터	가출 청소녀	24시간
	단기쉼터	가출 청소녀	3개월(1회 연장)
	드랍인센터		

4) 현 지원체계의 한계 및 애로점

(1)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기관들 : 성매매 노출 청소녀에 대한 구체적 상담 및 접근하지 않음. 상담 연계 및 문제 파악이 안됨.

(2) 쉼터 입소에 대한 거부감 : 규칙과 통제, 공동생활에 대한 거부감

(3) 입소인원의 감소 및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녀들이 주 입소 대상이 됨.

(※인원 감소는 단순히 쉼터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법의 집행력과도 관련되어 있음)

(4) 입소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5) 경찰 연계 등으로 인한 일시 입소에 대한 부담 : 쉼터 노출, 입소자들과의 관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워크숍(2)

-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이후 지원 방향에 대한 대안 찾기 -

정미애 -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 ‘평화의샘’부설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왜, 성매매 피해인가? 성착취 피해자로 봐야한다!

▪ 근래 들어 성매매피해 관련 기관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집에 입소한 친구가 지적장애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사실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지닌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성매매 피해자가 도드라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1]서울시가 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실태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74%(232건)로** 대부분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 여성이었다. [2]정세연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2002-2010년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기간 전체 상담건수는 총 7천268건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 상담 건수는 5천774건에 달했다. 지속적인 상담을 받은 피해자 659명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542명(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청각장애인 39명, 지체장애인 35명, 뇌병변장애인 13명, 정신장애인 11명 등이었다. **위에서 보듯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중 70% 이상의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은 특성상 인지능력이 낮고 판별,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이러한 특성은 성폭력 피해와 성매매 피해를 구분 지을 수 없는 특성일 수 있다. 지적장애 청소녀의 성매매 피해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맛있는 음식과 옷을 사준다고 관심을 보이면서 남자친구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만남 후 지능이 낮은 것을 알아차리고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한 후 그냥 가는 사례도 있으며 오백원, 천원, 음식 등의 ‘댓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상황이다.

▪ 평화위기교육센터는 성매매피해 지적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탈성매매(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40시간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나 교육을 의뢰해오는 기관(장애인복

1) 「서울시,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실태결과 발표」이데일리뉴스 2013.04.18

2)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 지적장애인」광주매일신문 2011.12.21.

지관, 장애특수학교, 청소년수련관, 가출청소년쉼터 등)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행위자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교육문의를 하였다가 취소하는 부분이 있다.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와 성매매 피해에 대해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기교육센터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는 대부분 비자발적인 참여(학교선생님의 권유, 사례담당자의 권유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념 규정이 성폭력과 성매수를 아우르는 성착취 개념으로 재규정 되지 않는다면 숨어있는 지적장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더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경계선급지적장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2012년, 2013년 평화위기성장캠프 교육수료생 장애등급 분석결과

년	계	1급	2급	3급	경계선	비고
2012	25 (100%)	1 (4%)	7 (28%)	10 (40%)	7 (28%)	3급의 경우 신체장애 2명 포함
2013	23 (100%)		5 (22%)	12 (52%)	6 (26%)	

- 2012년과 2013년 교육수료생중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청소년이 73%, 경계선급지적장애 참여자가 27%이다. 지적장애 성매매피해 청소년인 경우 지적장애인지 모르고 성매매에 연관이 되었다 후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청소년이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또한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일부 장애만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경도지적장애와 경계선급장애를 지닌 경우 개인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외부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래들 간 무엇인가 다른 혹은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또래관계 내 무시를 경험하게 되고 관계망을 구성하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발성을 범죄의 판별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적장애(혹은 지적장애 수준)라는 특수성보다는 통념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사.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와 경계선 수준의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의 진술시 유도수사가 필요하다. 생활시설 입소자들의 법률지원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적장애청소년들이 시간 공간개념이 희박하여 진술의 일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유도수사와 전문상담원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문제는 경계선급 피해자의 지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경도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거의 흡사한 피해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지

원 시 혹은 의료지원 시 여러모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피해와 가해가 혼재 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급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 관련 실태조사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지적장애청소년 혹은 성인의 성매매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시설에서 지적장애성매매피해지원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피해지원은 아직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도 위기교육센터가 생긴 이후 청소년에 한해서만 데이터가 있는 실정이고 성인에 대한 통계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성매매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지원시설에서 경도지적장애인들인 경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에 입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장시간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하므로 실무자들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지적장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인 경우 외부시설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중증지적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장애인시설로의 입소를 고려해야 하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성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의 부재로 장애인 시설의 입소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복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를 지녔을 경우는 연계 시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을 고려한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수준, 연령, 성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지적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안전망을 둘러싼 부모나 교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부재하다.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장애의 특성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원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IT, 거리에서 청소년과 함께 사회적 대안 만들기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이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가" - 거리청소년아웃리치 현장에서

변미혜(움직이는청소년센터)

1)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소개 (2011/07/26 개소)

○ EXIT 활동의 목적(미션)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거리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건강하게 자립하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든다.

○ EXIT의 역할과 가치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역할
  -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거리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와 소통
  -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장 마련
  - 사회가 책임지는 일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마음(가치관)
  ° (인권) 감수성, (사회적) 관점 갖는다.
    - 청소년이 주체이고, 당사자이다.
    - 그들에게 권리가 있으며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 관계를 통한 것이다.
    - 청소년들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경험한다.
    - 새로운 신뢰관계가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된다.
  °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 또 다른 재능이 있다.
-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 많은 경험은 그 사람의 사고와 마음을 풍요하게 한다.
-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 EXIT 사업내용

1. 돌봄

거리청소년 발굴(패트롤)
따뜻한 밥상 나누기(식사, 간식)
수다와 상담이 함께 하는 공간(친구, 멘토, 부모 상담)
잠시 쉬어가기(마루에서 휴식, 게임, 폰 충전)
다친 친구를 위한 의료지원(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문신 제거 등)
위급한 상황의 법률지원(일 관련, 경찰서, 변호사 등 연결)
긴급 상황에서의 물품지원(속옷, 양말, 위생용품, 콘돔)
개인별 필요한 지원을 위한 타기관 연계(쉼터 및 자립홈, 인턴십, 개인상담, 병원 등)
자립홈 운영

2. 배움

주제가 있는 스토리텔링
취업준비교육(이력서, 자소서, 면접, 업체 연결 등)
성교육(성적 의사결정, 피임, 임신, 성폭력, 성매매 등)
진로상담(인턴십, 진로교육, 직업체험, 진로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나누기(아르바이트, 검정고시 등 등)

3.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 버스 활동 기획 및 운영, 대사회적으로 청소년 목소리 내기
별별 프로젝트 : 버스의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프로포절, 운영, 포트폴리오 제작)
해변 아웃리치 : 해변아웃리치 십대 기획단 모집, 해십단 사업 기획 및 운영
문화 프로젝트, 여행 프로젝트

4.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협력

지역 내 청소년 기관과 연계 및 네트워킹
활동가 조직 및 활동가 전문성 향상, 멘토링
지역 내 청소년 이용 업소와 협력

○ EXIT를 만나려면

- 매주 목요일 오후8시~오전1시, 안산 중앙역(성어공원)
- 매주 금요일 오후8시~오전2시, 부천역(북부광장)

○ EXIT에서 만나는 청소년

- 2013년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용 청소년 현황

월	버스 이용자(실인원)						
	성별		가출경험			합계	하루 평균
	여	남	유	무	알수없음		
1월	104	198	218	77	7	302	34
2월	78	101	141	28	10	179	22
3월	81	121	160	24	31	202	22
4월	137	181	230	50	28	318	40
5월	162	196	257	76	14	358	36
6월	133	182	261	41	13	315	39
7월	118	243	282	37	42	361	39
8월	112	199	244	47	20	311	31
9월	100	117	190	22	6	217	27
합계	1,025	1,538	1,983	402	171	2,563	29

- 올해로 3년을 보내고 있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매주 목,금요일 밤 거리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 거리청소년을 발굴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 연결하거나 거리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하루 평균 29명의 청소년을 버스에서 만나오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20여명에서 많을 때는 70명까지도 버스를 찾아오고 있다.
- 2011년 첫해에는 거리로 나가서 거리청소년들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으나 현재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이며 자발적으로 버스를 찾아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등 센터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역할까지 해 오고 있다.
- 센터를 통해 만나는 친구들은, 위 표를 살펴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가출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1,983명으로 78%를 차지한다. 이 중 현재는 귀가하여 밤거리에 놀러 나오는 친구들 부터 장기간 거리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다양한 가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 또한 버스에 오는 청소년 중 여성이 40%, 남성이 60%를 차지한다. 개소한 첫해에 여성이 30%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점점 거리에서 여성 청소년(청소녀)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있으며 특히 가출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거리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의 시작

- 2011년 7월에 센터를 개소한 이후 안산과 부천 지역의 거리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 건 2012년 봄이었다. 그동안 친구들은 이 공간에서 먹고 쉬고 일상을 나누는 정도로만 이용하였지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공유하기란 쉽지 않았다. 라포 형성 기간이 7개월은 필요했던 것이다. 매주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지만 신뢰로운 관계가 되는 데에는 지속적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 이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 중 많은 여자 친구들이 성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으나(하루에 5명 정도는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경찰이나 상담소 등을 통해서는 현장을 잡거나 본인이 신고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 2012년 봄 어느 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00역 앞 ***모텔에서 지내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모텔의 호수까지 알아내어 경찰과 모텔에 들어가 보았으나 이미 경찰이 오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모텔 주인은 그 친구들을 미리 모텔에서 내보냈다.
- 그 후 부터 우리의 현장인 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그 거리에 있는 X맨, Y삼촌, M이모, K아저씨들은 십대인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잠자리, 술, 담배, 식사, 용돈 등을 제공하면서 성매매,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지내는 사람부터 모르는 길거리 아저씨까지 십대 친구들이 필요할 때는 먼저 놀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성인들은 각종 제안을 하고 있었다.
- 청소년 활동 및 상담을 중심 내용으로 꾸려져 있는 EXIT는 성매매 분야의 법적 지원이 필요했고 전문 상담 및 교육, 그리고 대책이 필요했다. 그로부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 및 위기청소년교육센터들과 긴밀하게 연결하기 시작하였다. 사또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들이 이 현장에서 이 친구들과 만나야 하였다.
- 또한 동시에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00시장실에 들어가 시와 경찰의 협력을 제안하였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3) 아청법, 그리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제안

- 성폭력과 성매매의 사이에서 고민해 본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를 과연 어린 친구들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친구들이 거리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거리에서 살면서 당하는 피해들이 어떠했는지, 성매매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어른들, 그러한 행위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이 사회 자체가 성폭력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성매매의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성매수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보호 없이 성매매로 살아가겠다는 친구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 이것은 어떠한 폭력보다 위험하게 여겨지며 활동가로서 이 현장에 대해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사회에 대해 분노하게 하는 지점이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청소년 삭제'는 당연한 결과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장에서 아청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인터넷이나 휴대폰 또는 거리 현장에서 쉽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나 증거 불충분 및 피해자의 신고 거부 등의 이유로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처벌 기관에서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법과 현장은 수평선을 긋고 있는 듯 하다.

- 2012년부터 사또나 서울, 인천, 경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연대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센터에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청소년들 보다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전문 상담원의 확충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 센터가 활동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간단한 상담과 일상을 나누는 정도의 친구들부터 생존의 위협으로 고통 받는 친구들까지 다양하다.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로서 전문적인 노력과 많은 공을 들어야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번의 상담으로는 어림없고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이 이들의 삶에 또다른 대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전국 청소년일시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거리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거리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이러한 활동 현장에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거나 또는 거리아웃리치 활동가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적어도 관련 기관에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 한다. 자신들의 일상과 방식에 맞는 일자리,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해 주면서 기회가 제공되고 함께 훈련하는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용직 형태를 시도한 '새날에오면'은 그들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일자리의 시도라 볼 수 있다. 밤시간에 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커피동물원'은 야간시간에 커피아카데미를 열거나 거리에서의 커피콘서트 등으로 그들의 삶의 공간과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더 다양하고 많이 제공되어야 그들이 새로운 시도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쉼터에 입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돈을 버는 것이 쉽지는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자율성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완전한 자립'이 쉽지 않다. 간섭은 받고 싶지 않아도 관심은 받고 싶어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자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안전과 안정감 속에서 자립하고 싶어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욕구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독립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관이나 자립홈, 또는 야간시간 드롭인센터 등의 현실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보호시설들이 필요하다.

- 본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무척 중요하다. 이는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소수의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책임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거리에서 먹거리, 돈, 담배, 술,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자들, 여기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 성폭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조치에 대한 홍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 요인으로 보여진다.

위기청소녀 자립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 위기청소녀의 자립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가는 심리사회적 전환기라고 한다. 이러한 전환기적 경험은 모든 십대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이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기는 놀이와 학교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이동기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일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gender)을 간과해서는 청소년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관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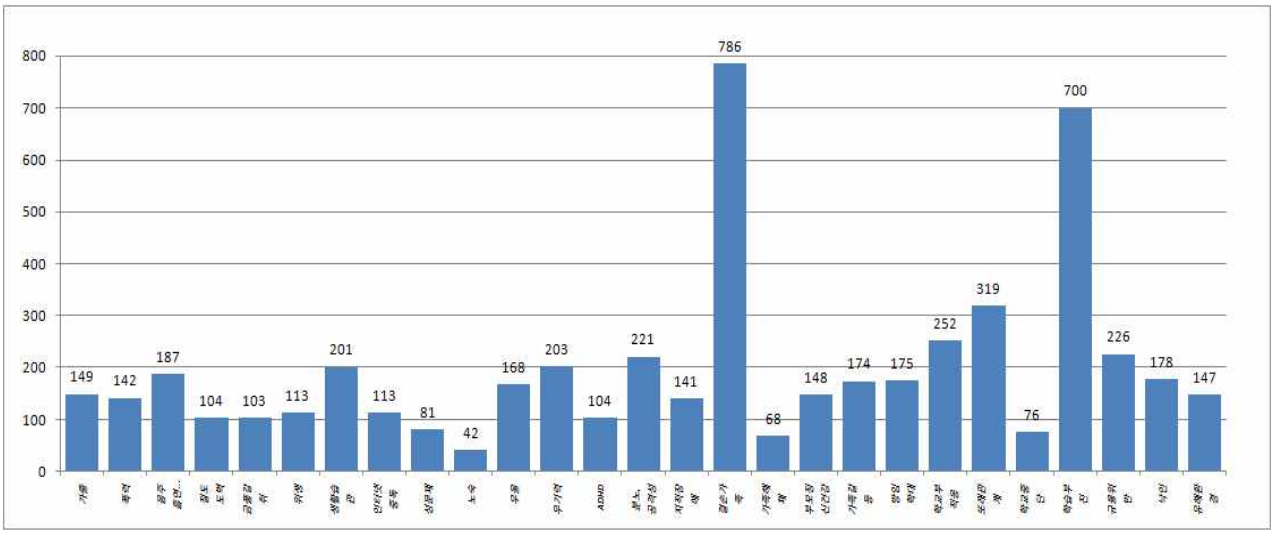
이런 관점들을 토대로 하여 질풍노도의 시기에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구조, 남성중심의 사회관계 속에서 위기의 청소녀들은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경험과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기본 배경으로 하여 위기청소녀들의 자립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현재 실종·가출청소년(9~19세)이 '07년에 186백명에서 '09년에 223백명(경찰청 신고인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07년에 708백명에서 '09년에 721백명(KEDI통계 연보)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중심 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전체 청소년(초5~고3)가운데 80만 명에 해당되는 15.4%가 위기 청소년이고, 3.9%가 자살 계획 및 시도를 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32.1%, 여자 청소년의 43.5%가 평상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2010). 청소년 유해업소 역시 '07년에 760,386개소였던 것이 '09년에 796,687개소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학업중단 청소년은 연간 62천명('10년도) 수준이며,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증가추세이다.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는 학습부진 및 교사·교우 관계 등에 따른 학교부적응과 가장의 실직, 가정해체 등에 따른 가사문제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청소년을 분류할 때,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기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위기 청소년의 주요 발현 위기유형은 인터넷 중독(25.8%), 가출(23.1%), 학업중단(21.3%), 자살충동(12.4%) 순이며, 그 중 39%는 2가지 이상의 위기유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청소년백서



노원지역청소년 위기현황자료

위기청소년은 학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011년 발간된 청소년백서에 있는 몇몇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위기청소년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학업중단, 가출 상태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거리를 배회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유해환경에 접하게 되고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대의 여자청소년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 등 성관련 산업에 노출되는 등 큰 위험 요소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자립에서 경제적 자립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래의 표는 가출한 십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쉼터나 그룹홈 등 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며, 다음으로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60명(35.7)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자립하기를 원하며, 거리를 떠돌아다니기 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생활토대를 상실한 위기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무엇보다 가장 큰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가출이후 절반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들은 주로 시급을 받는 음식점이나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임시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경력도 없고 학력도 낮은 십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지면 조건만남이나 보도방, 단란주점, 키스방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 가출 십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쉼터, 그룹홈 등 살 곳	100	42.7%	59.5%
일자리	60	25.6%	35.7%
학업	16	6.8%	9.5%
취업교육	16	6.8%	9.5%
정서적 지지	12	5.1%	7.1%
의료지원	11	4.7%	6.5%
또래상담	7	3.0%	4.2%
법률지원	4	1.7%	2.4%
기타	8	3.4%	4.8%
계	234	100.0%	139.3%

*십대여성의 가출과 폭력피해 실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p.55

자립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립은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는 경제적 자립에서부터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다차원적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자립은 생활을 안정시키고, 심리적, 정서적 자립도 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인 자립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력을 갖추어야하고 직업 훈련 등의 자립준비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은 취업을 포괄하는 통합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방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고려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립지원모델 – ‘통합적경제자립’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의 주된 행위자는 세 곳으로 학력획득을 위한 **‘자립학교’**, 직업훈련과 인턴십, 취업을 위한 **‘인턴십 매장’**과 **‘자립매장’**이 있다. 여기서 ‘인턴십 매장’과 ‘자립매장’은 인턴십과 매장을 결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 특성을 갖는다.

‘인턴십 매장’에서는 특화된 영역(커피)에 대한 직업적 의미를 강조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술습득에 초점을 둔 접근을 시도하였고, ‘자립매장’에서는 다양한 자립 영역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직업적 의미 보다는 자립을 훈련하는 매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

이 직업훈련과 인턴십의 다양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에서는 보조행위자를 두었는데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모니터링팀이 그것이다.

① 자립학교

자립학교는 학교 밖의 위기청소녀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은 구조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다진다. 학교를 뛰쳐나왔지만 '학교'라는 말이 그들에게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것 보다 크고 중요하다. 현재 2개의 자립학교는(마포자립학교, 노원자립학교) 이들 십대여성의 학력취득을 지원하고자 검정고시 관련 주요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즉 공부하고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거꾸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하고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음 인정하고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 자립학교를 운영한다.

② 인턴십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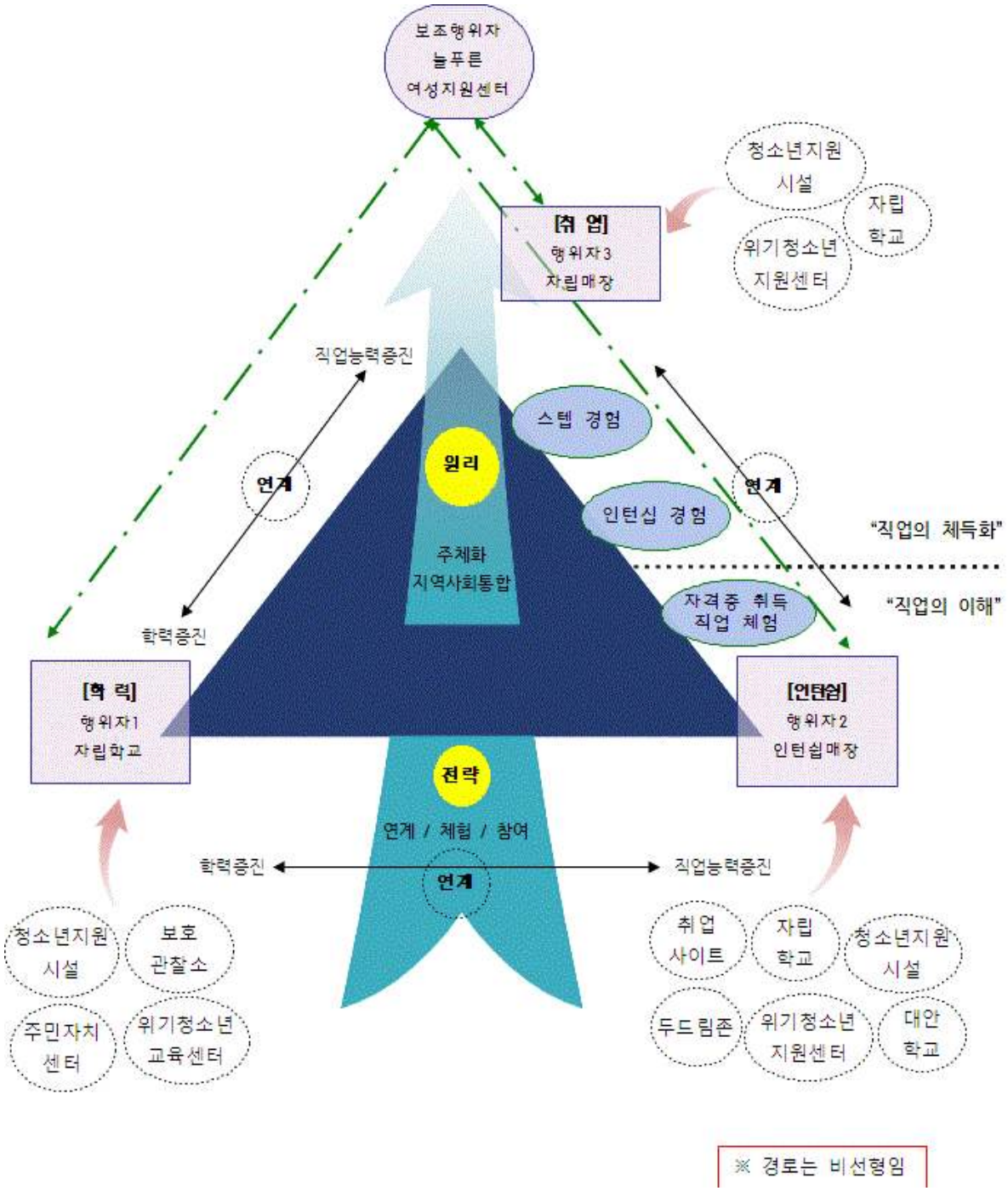
인턴십 매장은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을 심화하고, 실제 매장에서 이를 실현해보는 직업훈련의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십대여성들은 심화 인턴십 교육을 받고, 실제로 매장에서 일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인턴십 매장'에 대한 경험은 십대여성의 나이, 욕구(사회로 나가고 싶은 욕구, 실질적 욕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해서 이루어진다.

③ 자립매장

자립매장은 인턴십 매장의 또 다른 이름이자 취업의 요소를 함께 갖는 훈련매장이다. 인턴십 매장과 마찬가지로 인턴십 교육과 함께 매장에 직접 참여해 돈을 버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성취해 간다. 결국, 인턴십 매장과 자립매장은 심화된 인턴십과 매장 경험을 동시에 연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자립매장'은 '인턴십 매장'과 달리 직업훈련의 의미 보다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자립 영역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둔다.

④ 보조 행위자: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모니터링 팀

'통합적 경제자립 모델'에서는 이들 세 가지 행위주체들이 각각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유기적 연계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모니터링팀을 가동하였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모니터링팀을 통해 개별 기관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모델 진행을 함께했지만, 개별 기관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주고 조정해주는 등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보조행위자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청소년지원
시설
자립
학교
위기청소년
지원센터
[취 업]
행위자3
자립매장
직업능력증진
스텝 경험
원리
연계
연계
인턴십 경험
"직업의 체득화"
주체화
지역사회통합
자격증 취득
직업 체험
"직업의 이해"
학력증진
[학 력]
행위자1
자립학교
[인턴쉽]
행위자2
인턴쉽매장
전략
연계 / 체험 / 참여
학력증진
연계
직업능력증진
청소년지원
시설
보호
관찰소
주민자치
센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취업
사이트
자립
학교
청소년지원
시설
두드림존
위기청소년
지원센터
대안
학교
※ 경로는 비선형임

3. 노원늘푸른자립학교의 자립교육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발견하고,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기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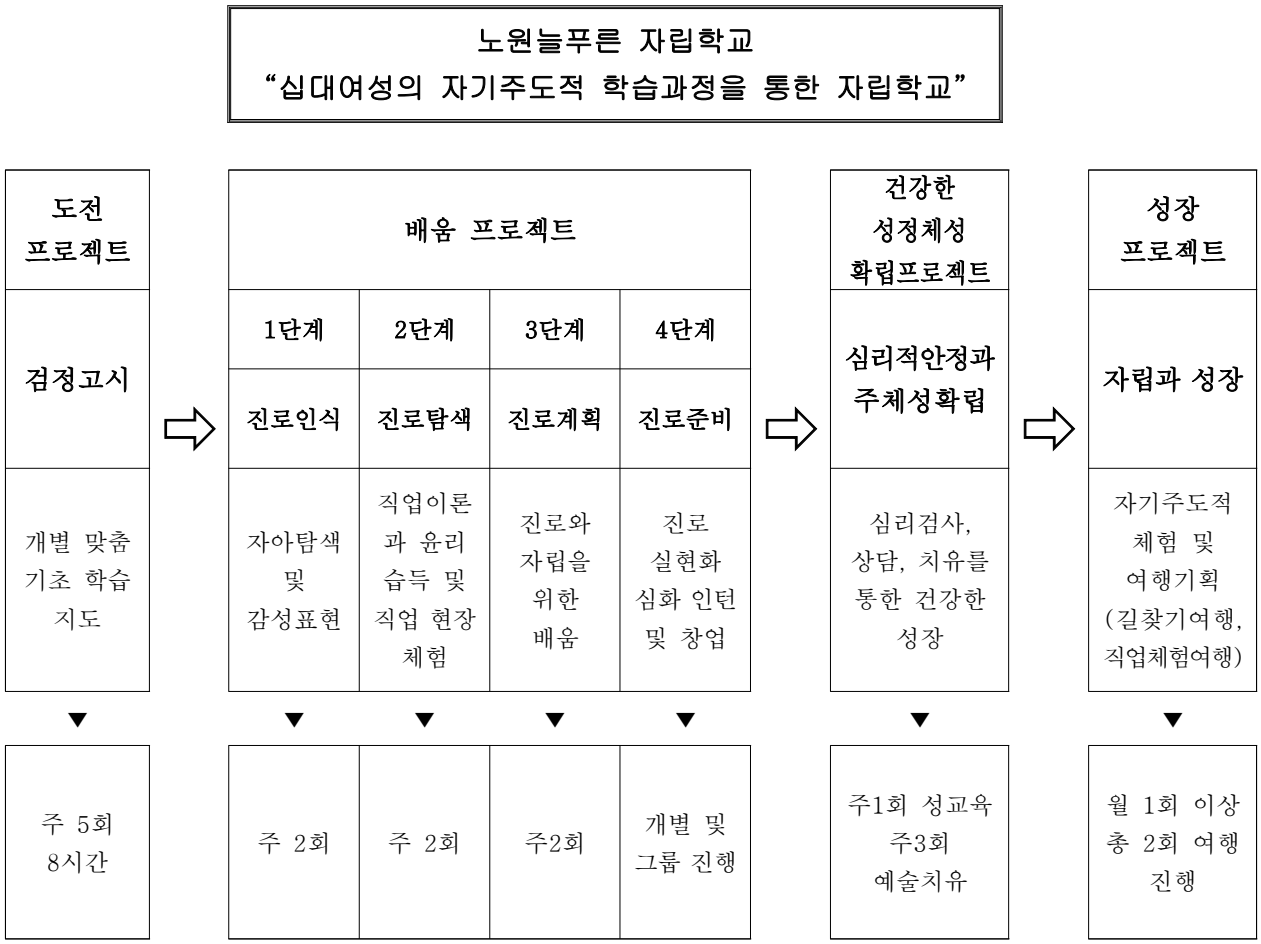
또한 이 과정에서 배움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한된 경험과 사고를 뛰어넘어 다양한 경험의 자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연결되는 배움과 실천의 통합학습 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고 있다.

1) 십대여성의 주도적 <u>진로성장과정표</u>

2) 십대여성의 주도적 성장과정을 위한 <u>4가지 교육방침</u>

4가지 교육방침	주 요 내 용
Learning to know	선택형 수업으로 통해 주도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Learning to be	건강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Learning to do	삶의 열정을 동기화하여 행동하는 습관을 기른다.
Learning to live together	세상에 열린 마음 통해 다양성을 배우며 함께 사는 법을 익힌다.

3) 노원늘푸른자립학교 자립체계도



4) 사업의 긍정성

가) 위기청소년들의 주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① 위기상황으로 왜곡된 성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성교육 전문가와 지역 성교육기관과 연계한 성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 왜곡 형성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 주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 상담을 의뢰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통한 정서적 안정화에 주력한 결과 학생들이 한층 밝아지고 가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② 학업중단의 위기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안정된 학교 환경과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감안하여 진행한 맞춤형 학습 지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학업 중단에 따른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의 의지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에 따른 기대충족은 성취감 및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의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③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생활 개선 노력

학업중단 이후 흐트러진 생활 습관과 또래들과 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던 습관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던 생활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실행되었다. 우선 시간에 맞춰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여 학교 수업에 적극 임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주체적인 참여를 하면서 그간의 무기력하고 게으른 모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향한 태도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같은 학교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의 분위기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향후 함께 어울리는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④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효용성의 상승

다양한 위기 가운데 노출된 상태에서 억압된 감정과 움츠러드는 행동 등 자신 안에서 아무런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꾀하였고 다양한 예술체험활동의 경험은 향후 성장과정에서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건강한 꿈을 향한 도전, 진로교육 실시

미래 삶에 대한 비전이 희박하고 자립의 의지가 부족하였던 학생들에게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다양하면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나'를 알고 '행복한 나'를 꿈꾸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미래의 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의 탐색을 통한 직업찾기, 꿈찾기의 과정은 철부지 문제아에서 준비된 직업인으로의 탈피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훈련되어지는 자율적, 주도적 참여의 경험은 노원늘푸른자립학교만의 특장점이 되고 있다. 특히 (사)청소년내길찾기의 대표기관인 "꿈틀학교"에서 10여년에 걸쳐 쌓아온 직업교육시스템의 자원은 더욱 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은 간호학원으로, 웹디자이너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직업 훈련의 장으로, 미용실 등으로 진출하여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멋지게 내딛었으며,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꿈을 이룬 학생들, 다시 재입학을 통해 더 견고한 성장의 발판을 쌓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면서 교육의 희망을 환하게 하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1) 지역성이 강조된 통합지원체계구축 필요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예방교육과 조기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거리의 서비스는 효과적이지 않다. 생활권과 지역권 안에서 보호상담 서비스와 더불어 자립에 대한 교육서비스(자립학교, 자립매장, 인턴십)가 제공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것이다. 지역 내에서의 통합적 원스톱지원시스템을 마련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다양한 공간의 마련

위기청소년의 요구는 다양하다. 지역내에서 징검다리 거점공간, 보호시스템, 교육지원시스템, 문화교양활동 등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 수용 가능한 공간의 확대 필요하다.

3) 인턴십체계구축

직업능력증진 훈련이 가능한 인턴십기업, 매장을 발굴, 참여시키고 단일한 훈련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인턴십참가자의 통합적 훈련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4) 자립매장의 확대필요

다양한 방면의 자립매장을 연계하여 여러 직종에서 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척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통합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합 관리할 기구도 있어야 한다.

반짝 반짝 빛나는 나의 꿈 보석 감정, 세공사를 소개합니다

글 | 김상은_2기 수료생

"보석 감정사" 과학적으로 보석의 종류와 진위를 감별하고 등급을 감정하는 기능사.

이게 감정사의 사전적 정의다.

감정사는 크게 다이아몬드와 색깔 보석을 감정하여 값어치를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는 등급 하나, 중량의 소수점 둘째 자리 하나로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거기다가 까딱 잘못해서 다이아몬드 속에 든 내포물을 잘못 그리면 다른 돌로 분류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귀하고 인지도 높으면서 비싼 보석이니만큼 엄격하고 까다롭게 보아야한다.

유색 보석들은 아름다움, 희귀성, 색채 등으로 가치가 달라진다. A차트에는 유명하고 전통적인 보석 108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국가자격증시험에는 A차트만 쓰인다) B차트는 아름답지만 희귀하거나 판매하기에 약간씩 하자가 있는 60여 종의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감정사들은 어디서 일할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정원이나 민간 감정원에서 일해도 되고, 외국어만 된다면 티파니, 드 비어스 등 유명한 회사에서 제품에 사용할 보석들을 분류하는 일을 맡기도 한다.

감정사는 현미경을 포함한 각종 기계들을 사용하며 특히 오랜 시간 집중해야 하므로 눈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세공사는 귀금속으로 목걸이, 반지 등을 만들고, 보석을 장신구에 쓸 수 있도록 세팅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 나오는 대장장이들의 축소된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망치나 모루, 불을 사용하는 것도 그대로다. 다만 현대에 맞게 좀 더 편리한 작업 환경이 조성 되어 있다. 물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다루는 만큼 힘이 많이 들기는 하다. 개인적으로는 체인 수작업(일일이 손으로...ㅠㅠ)과 이니셜 펜던트(목풍 톱질...)가 만들기 괴로웠다. 하지만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내는 즐거움은 특별하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

감정사와 세공사는 둘 다 국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감정은 실기, 세공은 필기가 어렵기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찬란한 보석들을 다루고 있자면 이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난 내 꿈도 가공을 기다리는 보석들처럼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다.

간호조무사 실습기

글 | 박미나_3기 수료생

작년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 후부터 간호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6개월 이론 과정을 끝내고 실습 과정을 위해 학교 부근에 있는 스마트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실습을 시작한지 3주가 다 되어간다. 실습시간은 총 4개월이다. 이 병원에서 내가 하는 일 은 바이탈 체크, BST검사 등등이다. 바이탈은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이 4가지를 합친 말이고 BST는 당뇨환자들의 당 수치를 검사 하는 것이다. 이 일 외에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다보면 거의 끝 날 시간이 다가온다.

우선 가자마자 BST 검사를 하고 20분 정도 후 스페셜차트를 하고 있는 환자 바이탈과 산소를 재는 것이다. 스페셜차트를 한 사람들은 더 위험한 환자분들이어서 더 꼼꼼이 신경 써 체크해야 한다. 그 후 일반 환자들 바이탈을 재다보면 어느새 오후 1~2시가 된다. 그리고 나서는 또 스페셜차트를 하고 있는 환자 병실을 한번 더 돌아서 체크하고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간호사의 심부름을 하고 나면 하루는 끝난다. 지금 실습하는 병동에는 60여명의 환자가 있다. 나 같은 실습생들은 하루 종일 바이탈 수치와 잡다한 일들과 씨름을 하다 하루가 끝이 난다. 이 일은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하고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나면 눈치를 봐가면서 또 다른 일을 알아서 찾아야하고 쫓아다녀야한다.

처음 실습 갔던 날은 힘들어 죽을 뻔 했었다. 하루 종일 서있고 바이탈 체크후 할 일 없을 때도 앉아 있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만 했다. 이렇게 일하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다음 날은 가기가 정말 싫었다. 하지만 실습시간을 맞춰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힘이 드는 곳에서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다른 쉬운 곳 보다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버티며 다니고 있다.

실습이 3주 정도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병도우미분들과 친해지고 또 어떤 환자분은 갈 때마다 우스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는 점점 재미있어지고 정도 많이 들었다.

간호 실습은 여러모로 힘들긴 해도 나중에 병원에 취업을 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실습이 힘들어도 꼭 끝까지 열심히 마칠 것이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꼭 딸 것이다. 9월 필기시험에 많이 응원해주세요.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을 위한 유도 수사 필요성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국제
미국 · 중남미

이번엔 한인교회 목사 성매매 하다 美경찰에 체포

조선닷컴

입력 : 2013.05.17 09:52 | 수정 : 2013.05.17 10:34

미국 한인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 활동을 하던 목사가 현지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려다 미국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한인교회에서 6년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활동을 해온 윤모(45) 목사는 14세 소녀에게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약속한 뒤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약속장소에 나타났다가 지난 14일 현장에서 함정 수사를 하고 있던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윤 목사가 한 호텔방에 들어서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고...

과거 기사 로그인 이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선닷컴의 일주일 이전 기사는 회원 로그인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기기사

심수봉-신재순-김계원…10·26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다. 10·26,.

[Weekly BIZ] [박현모의 '세종 리더십'] 신하의 개혁案 받아들인 세종, 깔아뭉갠 선조
재위 전반기의 선조실록, 즉 선조(宣祖)가 왕위에,.

조카도 靑에 안부른 朴대통령, 청와대에 '나홀로'…대통령은 외로워
박정희 전 대통령 34주기인 26일 서울 동작동 ,.

남편 강씨 측 "공개석상에서 김주하에 수차례 뺨 맞았다"…김주하 부부 '맞고소전'
이혼 소송 중인 MBC앵커 김주하(40.사진)씨와,.

backpage
United States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livia
Brazil
Ecuador
El Salvador
Finland
France
Mexico
Netherlands
Nicaragua
미국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백페이지닷컴

그루밍 행위 처벌

- 미국은 40개 이상의 주에서 인터넷 루어링은 범죄
- 수정헌법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인터넷 루어링은 단순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 인터넷 루어링: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인터넷 그루밍: 성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호자 내지는 상담을 가장하여 신뢰와 믿음을 쌓는 행위

유도 수사와 함정 수사의 차이

-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
- 기회제공형은 적법, 범의유발형은 위법
  - 수사 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
  -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객관적 정황이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시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범의 추단

청소년과 함께 걸주는
탁틴내일

- 유도수사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 일명 '꿀 바른 덫'이라고 함.
  - 마약수사, 차량절도, 해커, 테러범 유인 등에 이용
- 10대 성매매 유도수사에 대한 반론
  - 배 고픈 사람 앞에 김밥 두느냐? – 남성연대

- 영국, 미국은 함정수사 합법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 스웨덴, 프랑스는 함정수사 불법

- 법제화 vs. 수사기법으로 활용
- 정교한 수사기법 개발 필요
- 경찰과 연계 활동 강화